

지역 이야기

“사회적경제 더 활성화해야”

울김제지평선축제

마스터플랜 확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5개분야 68개 프로그램으로 10일간의 성공적인 축제 계획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올해에는 전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만큼 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년보다 마스터플랜 확정을 앞당겨 축제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두가 축제의 주인이 되어 축제를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 간부진과(사)김제시지평선축제제작위원회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사전 보고 및 설명의 시간을 가졌고, 금일도 축제관련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축제 사전설명회의 시간을 가져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 있다.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방향은 글로벌 축제로의 위상확립을 목표로 프로그램 구성 방향은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6차산업 선도 프로그램, 김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친환경 프로그램 등 글로벌축제의 위상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5개 분야 6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국내 우수 대기업과 상생협력 체결로 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농가수익 증대와 대기업과 상생하는 공동 홍보 마케팅 강화 등 대한민국 축제도시의 위엄을 뽐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올 들어 1000명 등록 완료

김제시보건소는 지난해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꾸준히 상담 및 등록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7명을 등록 완료하였고, 올해는 그보다 16배 증가한 1,000명에 가까운 김제시민이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분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효율성 극대화에 적극” 강조

박성일 완주군수는 22일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의 하나”라며 “각 부서마다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군수는 이날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경쟁과 이익 추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극복하고 상생과 나눔의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이며 완주군이 추구하는 ‘소셜굿즈(Social goods)’의 방향성”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군수는 “문화와 복지, 교육, 주거, 아이 돌봄 등 각 분야별로 공동

체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부서마다 사회적 경제로 돌려 효율성 극대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부서마다 관심을 갖고 사회적 경제를 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사회적 경제 혁신 프로젝트인 ‘소셜굿즈 2025 플랜’이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9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근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사회적 경제 1번지의 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박 군수의 이날 주문은 해당부서가 아닌 전 부서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식 격려’로 해석됐다.

박 군수는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공직 사회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중간간부 이상 고위직부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책연구모임인 ‘완주 켈린지 100°C’ 활동은 미래 공직 주인을 육성하는 중요 프로젝트인 만큼 신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등과 입체적인 공조를 통해 완주군 현안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별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며 “신규 중점관리 사업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풀기 가능한 등 총력전을 경주해 달라”고 강조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현장행정 적극 펼쳐 ‘정의로운 김제’ 실현”

김제시 허전 부시장, 주요사업장 방문 사업 추진상황 점검

김제시 허전 부시장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신축 현장 등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며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지난 1일 취임한 허전 부시장은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평소의 신념에 따라 부서별 시정 주요 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17일부터 3일에 걸쳐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제육교 재가설, 민간육종연구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벽골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하키전용구장 조성, 새만금 내부개발 등 현재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허전 부시장은 김제 육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 전면 차단에 따른 주민 불편으로 수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공사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백구특장차 전문단지

에서는 특장 기계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만큼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글로벌 특장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을 부탁했다.

이어 벽골제를 방문하여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 캐리터 조형물 설치 등 올해 계획된 사업을 지평선 축제 전에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2021 프리젠티와 2023 세계 챔버리 대회 시 김제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세계 청소년들을 매료시킬 벽골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 일정은 심포 마리아항을 시작으로 새만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농생명용지, 농업특화단지,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구축 등 내부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생생한 모습을 둘러봤다.

허전 부시장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특장차 전문단지, 새만금 등 주요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김제시 허전 부시장은 치매안심센터 신축 현장 등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다.

무궁무진한 김제시 발전 가능성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정을 적극 펼쳐 민선7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환경읍 지사협, 여름이불 지원 사업 실시

김제시 환경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병인, 허진섭)는 최근 ‘콜플러스 여름이불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여름이불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은 직접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여름이불을 전달하였으며,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거노인 배모(87)씨는 “매년 오래된 이불을 덮고 지냈는데 올해

는 깨끗한 이불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허진섭 민간위원장 “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이불 전달에 힘써 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열리는 제21회 김제지평선 축제에 명품 꽃길을 조성한다.

지평선, 코스모스 꽃길을 수놓는다

김제시, 꽃조형물 등 꽃경관 조성 총력

김제시는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21회 김제지평선 축제에 명품 꽃길을 조성한다. 코스모스 꽃길은 제1회 지평선 축제가 열린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식재노선을 추가하여 작년에는 김제시 전역에 식재하면서 4백리 길을 핑크물결로 수놓았다. 이젠 지평선 축제의 랜드마크, 고향의 정감을 주는 추억의 거리가 되어 온 만큼 올해도 코스모스 꽃길을 가을의 진한 정취감을 선사하고자 한다.

올해의 코스모스는 연장거리가 대폭 축소되고 집중 관리된 명품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스모스로 인해 차량 진출입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과 관광객들의 사진찍기 위한 불법 주차 등 교통안전이 문제가 되는 만큼,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여겨 기존의

연장거리 위주 꽃길 조성에서 탈피하여 김제시 진입로 및 축제장 주변 김제로 식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8개 노선 연장 88.6km로 축소되었다.

올해도 광활한 황금들판과 어우러지는 코스모스 꽃길로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벽골제 축제장 주변 다리 난간에는 코스모스 꽃길에 단절되는 대신 웨이브페튜니아 꽃주머니 설치로 8천본의 꽃들이 축제장 진입로를 진한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빛내 줄 예정이다.

또한 김제시는 축제를 위하여 다양한 꽃 경관을 연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벽골제 축제장 문화마을 중앙광장에는 쌍용농어의 중심이 되며 장생거울 상징하는 꽃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국화,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12만본의 꽃으로 벽골제 축제장 화분 배치, 시내 교통신, 회전교차로 등 꽃식재로 코스모스와 함께 다양한 꽃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도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내달 12일까지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다음달 12일까지 완주군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도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는 완주만이 갖고 있는 매력과 미래 100년 완주군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담아내 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실시된다.

완주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완주군의 이미지에 맞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제안하면 된다.

접수 문의는 완주군 기획감사실(063-290-2592, 2953)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 3명에게는 완주읍 상품권 총 100만원(대상 70만원, 최우수 20만원, 우수 10만원) 상금이 지급된다.

선정작들은 향후 완주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확산을 위한 내외부 검토를 거쳐 완주군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